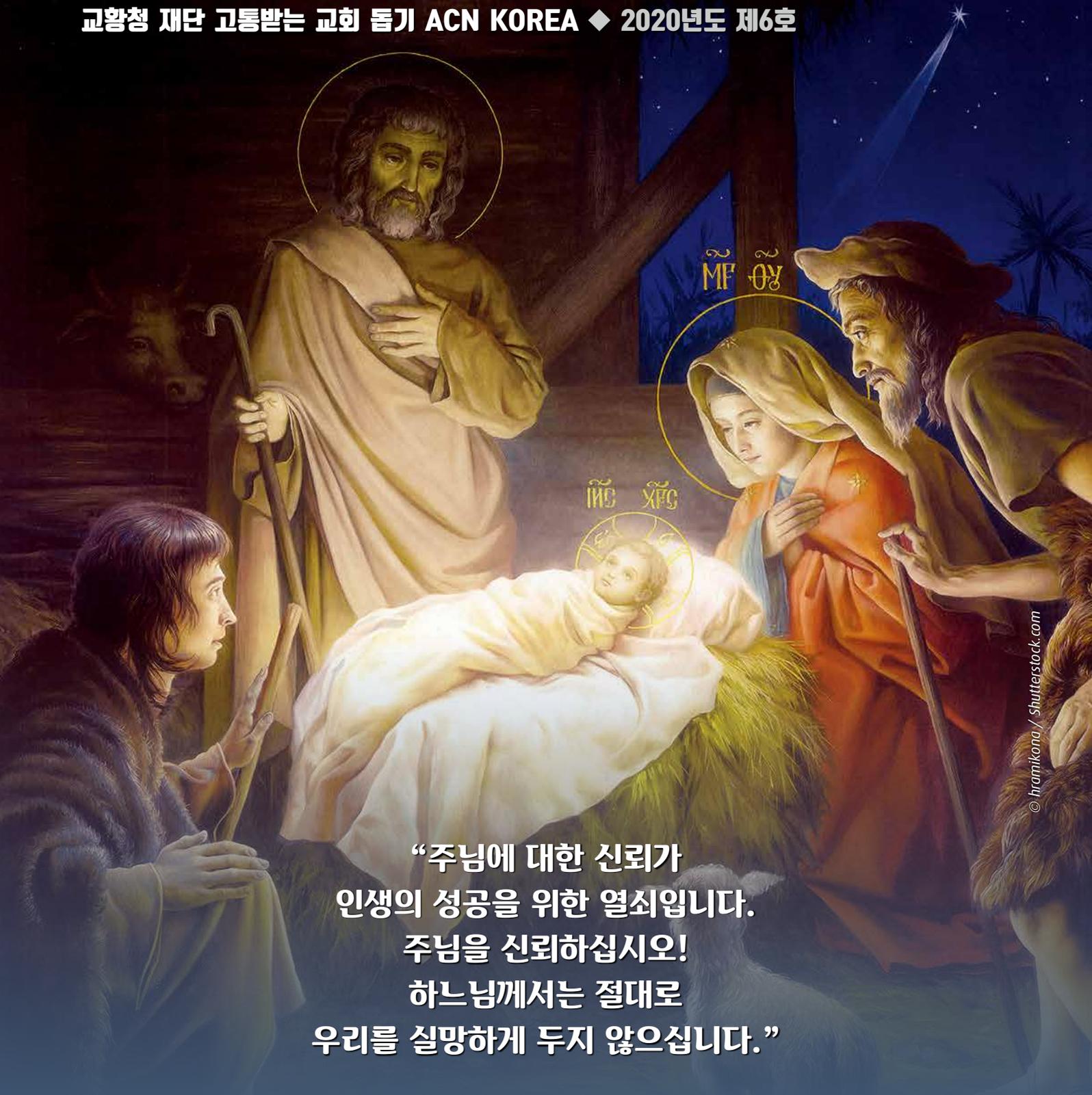




#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0년도 제6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인생의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절대로  
우리를 실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1월 19일 강론 중에서)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세  
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대림 시기를 맞아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이 사순 시기에 썼던 것과 크  
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9개월 전에는 ACN의 사업  
을 수행해 나갈 자금을 계속 마련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다면,  
지금쯤은 그저 진심으로 감사드릴 따  
름입니다. 여러분의 자비롭고 변함  
없는 후원으로, ACN은 다시 한번  
후원자 여러분과 고통받는 형제자  
매들 사이에 사랑과 배려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께서는 수도자와 사제들을 위한 생  
계 지원을 통해 ACN의 수많은 지  
원 국가에서 그들의 축복받은 활  
동의 토대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레바논과 아프리카 재난 지역의 많  
은 그리스도인들은 ACN 후원자 여  
러분의 물질적 지원과 기도를 신뢰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  
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오직 여러분께 돌아가야 마  
땅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후원을 계속해  
서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교묘한 박해'가 ACN  
의 지원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습니  
다. 이에 맞서는 튼튼한 요새는 여  
러분께서 실천해 주신 이웃 사랑으  
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보  
여 주시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이의 가장 사랑스러운 성격 중 하나  
가 신뢰입니다. 어린이는 맹목적으로 조  
건 없이 신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갈수록 이런 신성한 감정이 점점 줄어들  
습니다. 실망과 실현되지 못한 약속, 상처,  
배반,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신뢰를 파괴  
합니다. 결국에는 많은 이가 더 이상 그  
누구도, 무엇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의심은 원죄의 가장 슬픈 결과  
입니다. 낙원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  
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행복을 원  
하시는지, 또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 주  
시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의심하게 했습니  
다. 그렇게 인간은 아버지 하느님과 신  
뢰에 찬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  
께서는 인간의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하여 아  
버지와 자식의 파괴된 관계를 다시 복구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  
다. 그래서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과 인간  
의, 또한 인간과 인간의 상호 신뢰의 성  
대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이자 가르멜회 수  
녀, 성 에디트 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결  
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  
들을 통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언제  
나 제 곁을 지키시며, 당신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제게 말씀하신다면, 저를 안  
아 주시는 그 품 안에서의 제 신뢰가 얼  
마나 ‘이성적’인가를 깨닫습니다. 저는  
두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안에서 평온과 안전을 찾습니다. 튼튼한  
팔에 안긴 아이가 느끼는 달콤하고 기쁨  
에 찬 안정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  
니가 자기를 떨어뜨릴까 봐 끊임없이 불  
안해하며 사는 아이가 ‘이성적’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하느님  
의 전능하심을 알게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가오는 성  
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에 성가정으  
로부터 하느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시  
다. 절실하게 목을 여관을 찾아다닐 때,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들의 곁에 있는 아기를 신뢰했습니다. 이  
러한 신뢰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위협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에디트 슈타인은 프란하의 아기 예수상  
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그분은 언젠  
가 모든 곤경을 끝내실 ‘비밀스러운 왕’  
이 아니십니까?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다  
고 생각할 때에도 사실 그분께서 주도하  
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 파우스티나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의 자비의 샘에서 은총  
을 낚는 그릇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신뢰이다.” 힘든 일과 제한된 상황이 있  
지만,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에 특히 고  
해성사와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  
로부터 충만한 신앙을 낚는 일이 가로막  
히지 않게 하소서. ACN은 여러분의 마음  
을 움직이시어 세상의 큰 고난들을 위로  
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하며,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보여 주시는 신뢰  
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 가득한 대림과 기  
쁜 성탄 축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의 선물'

전 세계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은, 다가오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4일은 레바논 청년 자드에게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 제오르지오 병원에서 아내가 첫 아이 나빌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15분 동안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7분에 인근의 베이루트항 13번 창고에서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중으로 날아 올랐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처음 떠오른 것은 아내와 아이 생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나빌이 누워 있는 곳을 본 순간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박살난 유리창 아래, 유리 파편이 작은 창처럼 이불에 박힌 채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자드는 다친 곳이 없는 나빌을 품에 안으면서 껍짝 놀랐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요셉이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볼 때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2천여 년 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또한 하느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성 제오르지오 병원은 레바논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자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데, 폭발로 완전히 파괴되어 아내 크리스텔은 나빌과 8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젊은 아버지 자드에게는 힘든 고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폭발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갔던 요셉처럼 말입니다(마태 2,13-14 참조). 온갖 어려움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재 버려지고 포기당한 채 혼자라고 느낍니다.”

폭발의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30만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대부분 그리스도인입니다.

폭발이 특히 그리스도인 거주 구역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처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이번 겨울을 나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 위기가 나라를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드는 병원에서의 기적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하셔서 네가 살아 있는 것이란다. 엄마와 아빠는 다쳤어도 너는 굽힌 자국 하나 없단다. 절대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너와 함께 계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드는 나빌을 위해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태어난 지 불과 15분 된 순간부터 그것을 체험했고, 레바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박해를 겪으면서 살아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해야 합니다.”

자드의 증언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ACN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시다. 어린 나빌과 자드와 크리스텔 부부처럼.



나빌을 안고 있는 자드

나빌이 누워 있던 아기 침대



## 우크라이나, 신앙을 전하기 위한 선물

“구유 앞에 멈춰 서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향하며 세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어린이들이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대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전해 주려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 더 공정한 세상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인간적 형제애와 평화의 세상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1979년 성탄 메시지에 들어 있는 이 말은 기도와도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으로부터 더 나은 세상이 깨어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을 전하도록 돕는 일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선물은 많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교사가 되기 위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함께하는 스크린 속 얼굴들 또는 카메라 앞에서 수업하는 수녀들의 얼굴이 그 예입니다. 수녀들이 교리교사에게, 교리교사들이 다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교리교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으며, 다른 신자들도 기도 모임과 성경 모임을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리비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대학의 교육학 교리 연구소가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혼자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ACN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CN은 약 6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앙을 전하기 위한 이 선물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3만 원씩 보태 주실 분이 계실까요?**



우크라이나에서 교회의 역사를 교육하는 오레스타 수녀

코로나 시대의 수업, 신앙을 전하는 얼굴들



## 파키스탄, 마음속 열망을 채우는 신앙의 선물

“그리스도만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간직한 열망을 채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인간답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하느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가까이 응답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 베네딕토 16세 교황, 제23차 청소년주일 담화문 중에서

오늘날 파키스탄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젊은 나라입니다. 인구 2억 1천만 명 가운데 60%가 20세 이하이며, 그 중 3분의 1이 12~20세 사이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자 그리스도인 330만 명의 미래입니다. 파키스탄 교회는 올해 청년의 해를 선포했고, 이슬라마바드 라왈핀디 교구는 1,200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교구장 조셉 아르사드 대주교는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후

에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파키스탄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스도교의 인간다움을 사회에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과 희망, 상호 존중을 배우며, 세미나와 원격 교육 과정에서 직업과 가정에서의 행동, 교육과 약물 복용 문제 등도 다룰 것입니다. **ACN은 아르사드 대주교의 요청에 따라 약 117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5만 원으로 젊은이 5명에게 “마음속 가장 깊숙이 간직한 열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선물이 있을까요?**



침묵 기도를 드리는 이슬라마바드의 젊은이들

프란시스코의 아기 예수상을 만고 있는 파키스탄 소년



## 베네수엘라,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선물

“젊은이에게 천국이 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로서는 ‘잡히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향할 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교를 단절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지면, 죄의식도 사라집니다.”

재위 기간이 한 달 남짓이었던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재임할 당시 가정과 종교 교육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처럼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끈뎀뚜알 작은 형제회는 카라카스의 학교에서 학생 700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 아침 식사를 거르고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카라카스 교구장 서리를 겸임하는 메리다대교구장 엔리케 포라스 추기경은 ACN 어린이 성경을 비롯하여 가톨릭 청년 교리서 「YOUCAT」(유캣) 800부, 가톨릭 사회 교리서 「DOCAT」(두캣) 400부, 청소년을 위한 성경 656부, 그 외 다양한

기도서 등을 마련하고자 ACN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일부는 교회에 적대적인 환경일수록 바로 젊은이들이 신앙을 더 제대로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젊은이들에게 청년 교리서나 성경 한 권은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심화시키는 선물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안심하며 ‘잡힐’ 수 있습니다. ACN은 약 96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만 원으로 베네수엘라에서 교리를 공부하는 한 소그룹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리서를 손에 들고 있는 카라카스의 젊은이들



## 필리핀,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는 신앙의 선물

“우리 마음에 손길이 닿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평화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성탄 메시지와 교황 강복 ‘우르비 옛 오르비’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서술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귀여겨듣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성경을 풀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바스티아노 담브라 신부가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설립한 엠마오 신학원의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원에는 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세대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교육받을” 건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지식을 갖추고, 평화로 가는 길인 대화의 문화를 실천하고 장려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가는 필리핀에서 이러한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엠마오 신학원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많은 세대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ACN은 신학원의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약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담브라 신부



# 시리아, 고통을 덜기 위한 신앙의 선물

어린이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원을 빕니다.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어린이들이 성탄 소원을 말할 수 있다면, 아마 한 가지 소원이 언제나 그 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약, 엄마와 아빠를 위한 치료제, 다쳤거나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조셉마리 수녀와 다마스쿠스의 한 가정

오늘날 시리아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족 물자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이 없다는 것은 먹을 힘도, 살아가길 희망도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시리아의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공공 병원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500만 명을 포함해 1150만 명의 시리아인들은 병원은 물론이고 진료소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수도 다마스쿠스만 해도 150만 명, 제2도시 알레포에는 220만 명이나 됩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절반 이상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30만 명의 임산부 또한 산전 관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고 어린이 사망률은 9% 증가했으며, 기대 수명은 평균 6년이 줄었습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시리아인 5명 중 4명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집세와 생계비, 필수 의약품 등 전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도움이 절실한 시리아인들은 교회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브장송의 애덕의 수녀회 소속 조셉마리 샤나 수녀는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 가정 300가구와 환자 2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조셉마리 수녀는 ACN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년층에서 암 환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탄절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보낼지, 누가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들과 동방에서 온 세 박사의 선물이 그랬던 것처럼, 의약품 지원은 자그마한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약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며, 기도하고 희망을 품을 시간과 아이들을 보고 기뻐할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의약품 지원은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선물합니다.

**ACN은 조셉마리 수녀가 앞으로 6개월 치의 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약 1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조셉마리 수녀가 보살피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선물이 됩니다.** 이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의약품 지원이 아닌,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시리아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희에게도 그것은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예고한 날, 그분 마음의 드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루카 2,14 참조).

## ACN 성탄 캠페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의 선물'



캠페인 링크를 통해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동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캠페인 링크** <https://bit.ly/GiftOfFaith>

**"하느님께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 니콜라 수녀, 레바논 로사리오 수녀회



#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 팬데믹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

저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수녀입니다. 언제나 훌륭한 영적 독서 자료가 되는 <사랑의 메아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시기에는 많은 것에 대해 속고하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사납게 날뛰는 폭풍이며, 하느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현존, 그분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고립의 이 시기에 은총의 하느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소서. 이 시기를 숙고의 시기이자 우리의 가치와 무엇이 우선인지 새롭게 평가하는 시기가 되게 하소서.

## 무사고 운전에 감사드리며

1년 동안 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합니다.

## 오스트리아의 주교로부터

ACN의 <2019 연간보고서>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CN이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ACN을 통해 행해지는 선교사업과 박애 활동의 놀라운 규모에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지하며, 기도 안에서 늘 ACN의 사업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연대 의식의 생일

저와 제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 매년 보내 주시는 편지와 <사랑의 메아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이 일에 제가 보탬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생일을 '연대 의식의 생일'로 보내면서, 제 선물은 ACN을 위한 후원금으로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CN의 모든 사업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ACN 후원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금은 2021년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유형: 기부코드 41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회원정보에서 기부자의 ①이름,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를 꼭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 또는 수정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자동등록기간: 2021년 1월 4일까지)

### 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링크

<https://bit.ly/ACNdonation2020>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하느님 사랑과 자비!

오곡백과 무르익어 광주리에 가득 채우던 가을도 낙엽 지는 하늘가에 벌써 자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쓸려간 바람에 시나브로 옷깃을 여미며 얼음장 갈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12월' 문턱에서 이 겨울을 꺼안아 봅니다.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와 상호 교류의 기존 질서가 뒤흔들리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즉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듯'(마태 24,36 참조) 지금의 지구촌 최대 위기를 언제 벗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말미암아 현대 물질문명이 큰 전환기를 강제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힘과 재물의 논리로 움직이던 세상에 편승하여 이기주의와 편리주의에 젖어 전속력으로 달려온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건강한 세상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숙제도 받았습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사람들 간의 서로를 지키는 사회적 거리에 반비례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변두리의 이웃들은 물론 지구촌의 고통받는 이웃들과의 마음의 거리 또한 오히려 더 가깝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3월 28일 새벽, 성 베드로 대성전 앞 텅 빈 광장에서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류 공동체를 위해 홀로 기도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마침내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을 반포하셨습니다.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대한 교황님의 이 회칙은 코로나19로 더욱 양극화되어가는 세상, 특별히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이라는 결함 많은 대안들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건강한 세상을 위한 애덕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님은 루카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고 묻는 율법 학자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루카 10,25-37).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유대인 한 사람을 두고 같은 민족인 사제와 레위는 모두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그를 보고 측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를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줍니다. 그렇다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과연 누구냐고 비유 끝에 예수님은 율법 학자에게 되묻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율법 학자의 답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후원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은 물론 다른 종교적 견해나 신념에서 비롯된 무서운 폭력으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느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가 아니라 '있음'으로 해서 '넉넉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곤경 속의 이웃들과 박해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남들은 나를 얼마나 좋게 보며, 그래서 남들은 나를 얼마나 지지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사랑을 담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는지 또 실제적인 연대와 결속을 위해 무엇을 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고 사회적 평화의 씨를 뿌려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얻은 풍요로운 선익은 얼마나 거두어들이었는가?'를 물으라 하십니다(회칙 「모든 형제들」 197항 참조).

우리 가슴에 봄은 아직 멀리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가난한 마음'(마태 5,3)과 '가엾은 마음'(마태 9,36 참조)으로 무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면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보내고 난 뒤 꽃이 되어 언제든지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